

해외수산정보

- 2009년 러시아 수산업 주요 동향

- 러시아수산청장의 제4차 국제어업인포럼 연설문 중심으로 -

해외수산정보

2009년 러시아 수산업 주요 동향

-러시아수산청장의 제4차 국제어업인포럼 연설문 중심으로-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어업인포럼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느 덧 이 모임이 세계 수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들을 서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포럼에 참가한 러시아를 비롯한 각국의 대표단들은 해양 및 수산업이 국가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수산업 발전을 위한 공통과제를 연구하고 각국과 상호 파트너십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수산물의 투명하고 정직한 거래를 통한 상호이익 구축, 그리고 수산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 국제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에서 러시아 수산업의 수장으로서 최근 러시아 수산분야에서 일어난 여러 변화들에 대해 러시아 및 외국 참가회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 러시아에서는 수산분야의 개혁을 비롯한 수산업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행정개혁과 다양한 정부정책이 채택되었습니다. 30개 조항의 수산관련 규정과 50개 조항 이상의 수산업법 개정을 발의하였으며, 향후 20년간의 조업어장 배정과 10년간의 수산자원 어획 쿼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수산업 역사상 최초로 예산 약 620억 루블 규모의 '2009년~2013년 러시아 수산업 발전계획'이 채택되었습니다.

2009년은 러시아 수산업을 위한 실무적인 한해가 되었으며 그 성과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조업어장 및 어획쿼터의 장기적인 정착을 위한 관련 규정의 채택은 러시아 수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경제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의 완화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대부분이 생산량 감소라는 부정적인 거시경제지표를 나타내는데 반해, 러시아 수산부문의 생산지표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산부문의 고정자본 투자 또한 약 29%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러시아 수산부문 종사자의 평균임금은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이 수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공제조부문에서는 이러한 평균임금의 상승이 매우 드물거나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금년 신용자금 유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9년 상반기 수산부문의 자금회전율은 전년대비 약 25% 상승한 반면 가공제조분야는 24% 하락하였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수산분야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올해 러시아는 9월 현재 전년동기 대비 약 12% 증가한 230만톤 이상의 어획고를 올렸는데, 이는 극동수역의 어획고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극동수역에서는 지난해보다 173천톤 증가한 약 160만톤을 어획하였으며, 특히 연해주에서는 이미 총허용어획량(TAC)의 59%를 소진하였으며 연해주에서 러시아 전체 어획량의 상당량과 통조림 생산량의 75%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극동수역의 전체 어획량 중 명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9월 현재 명태 소진량은 932천톤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상반기에 '명태조업본부'가 설립되어 북오호츠크 수역의 조업기간 연장에 관하여 신속히 결정되었다면 지난해보다 훨씬 좋은 어획실적을 올렸겠지만, 조업지체로 인해 조업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번 계기로 성공적인 조업을 위한 핵심요소는 수산관련 조직이 아닌 해당 수산자원의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명태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한 오호츠크해의 'B시즌'(11~12월)에는 보다 신중히 명태조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허용어획량의 대상 어종수가 3분의 2정도 축소되었고, 200종 이상의 수산자원을 자유경쟁방식으로 조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경쟁방식에 의한 조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쿼터지분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충분하지 않은 쿼터지분을 보유한 어업인들에게 수산자원 이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러시아연방 반독점청의 수산자원 이용확대 요구에도 부합하고, 나아가 현재 전반적인 어획력 부진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자유경쟁방식 조업의 확대로 빨강대구, 가자미, 열빙어, 오징어, 가오리와 같이 그 동안 조업실적이 저조한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상컨대 올해 전체 수산자원의 어획량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조업방식 변경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업인들이 혼획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혼획한 어획물은 바다에 버리거나 선내에 숨겨 반입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인들은 혼획을 하기 위해 수산업법을 위반하거나 지정 조업지역을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불필요한 장벽의 철폐로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수산청 활동의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극동지역의 연어조업 지원을 들 수 있습니다. 수산청은 연어조업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10년간 전례가 없는 연어떼의 이동이 캄차카와 사할린 해역에 나타나는 성과를 얻었으며, 연어조업 활성화를 위하여 연어조업본부 설립, 조업선박 규제완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어쿼터의 기록적인 소진율에 영향을 끼쳤으며, 캄차카와 사할린해역에서는 이미 422천톤(9월 현재)의 연어가 생산되었습니다. 이는 평년 통계치의 2배 정도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 연어의 극동지역 항구를 통한 러시아 중앙지역으로의 공급을 위하여 러시아 철도공사와 운송에 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어조업은 러시아의 인적자원 및 기타산업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어조업으로 약 4만명의 계절직 일자리를 매년 보장하고 있으며, 연안의 생선가공업까지 포함하면 약 175천명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어는 러시아 전체 수산물 어획량의 약 10%, 수산물 가격의 약 20%, 수산부문 세금과 수수료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08년 이래, 현재 태평양 연어는 기록적인 어획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7년 태평양 연어는 143천톤 증가하였고 2008년 어획량은 이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현재의 성공적인 연어조업은 2008년 입법을 통해 2009년 초 관련규정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며, 수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러시아 경제의 장기적인 부흥을 위한 길은 길고 어려운 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수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가공하고 저장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8월 연어제품의 운반여건은 정말로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수산청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행정기관 간의 조정부재, 운송요금의 급격한 증가, 운송차량 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연해주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체요소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어선건조를 포함하여 조선업은 러시아의 우선순위 산업이며, 정부측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입니다. 수산청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까지 극동수역에만 562척의 신조선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 상기 척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오대양뿐만 아니라, 자국 배타적경제수역내의 수산자원 조차도 소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연방의 선박발전 프로젝트에 85억 루블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어선에 대한 투자는 단 10억 루블뿐입니다. 이는 어선건조사업 프로젝트 관련 경쟁입찰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어선건조부문 선진국인 노르웨이와 어선건조 컨소시엄이 구성될 것입니다. 동 프로젝트에 근거하여 선박이 건조되도록 정부가 프로젝트 전반을 감독하고 조선소나 수산회사에 참여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수산청은 노후화된 러시아 어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선건조를 위한 예산배정을 별도로 정부에 제안할 것이며, 동 예산이 배정되면 금융지원 형태로 수산회사에 전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극동수역에서 러시아 어선에 의해 잡힌 50% 이상의 수산자원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어선이 노후화 된다면 러시아 어업인들은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 할당된 조업쿼터를 전량 소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국내시장에 우선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일본, 중국, 한국 시장에 수산물 공급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이들 국가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수준은 수산물 공급부족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만 할 것입니다.

러시아 수산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긍정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4.23~4.25일 러시아 극동지역의 수산업발전 공동투자 프로젝트 구성에 관한 한·러 정부간의 협정서 승인에 관한 양국 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동 협의회에서 한국기업은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에 투자합의가 있었습니다.

- 주식회사〈프리모르스키 공장〉과 공동으로 어선 현대화 및 건조사업 실시
- 블라디보스톡 수산물도매시장 건설
- 연해주 지역 수산물 가공공장 설립

수산청은 연해주와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나홋카시와 함께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어선현대화 및 건조사업을 위하여 〈로스코르 조선소〉 설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 공장의 러시아측 설립자는 〈프리모르스키 공장〉이며, 한국측은 자본금 50%를 지원하는 〈하나로 조선소〉가 됩니다. 동 한국기업은 우리가 제안한 선박의 건조가 가능하며, 우리측이 제안한 여러 사항들을 수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조선소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는 철도와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물, 난방, 산업용 전기 등 모든 필수서비스가 완비되어 있는 이상적인 장소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조선소는 철강생산과 선박 현대화 및 어선건조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20일에 기업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년 1분기에 7개월간 3천 톤급의 선체작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선박건조용 철강의 평균생산은 연간 18천 톤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니다. 이는 대형선박 6~7척, 중형선박 20~24척의 건조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점은 이 모든 작업들이 계획에 의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철강제조부문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러시아 철강산업은 상승세에 있습니다. 올해 7월 〈마그니토고로스크〉에 푸친 총리 참석하에 산업단지 건설이 착공되었습니다. 이 산업단지에는 연간 150만톤 이상의 철강생산이 가능한 공장 〈스판-5000〉이 설립되며, 선박건조용 4,850밀리미터 너비의 철판생산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극동지역의 선박 및 어선건조 발전의 추가적인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09년을 국제 수산분야에서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의 발전수단으로서 수산분야의 국제협력 발전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소련은 오대양 수산자원의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보호 그리고 연구개발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인식되어 왔었습니다. 수산분야에서 소련의 수십년간의 리더역할은 소련 수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의 실현을 보장하였으며, 새로운 조업수역과 수산자원을 물색하고 명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생산력을 평가하기 위한 서식지 조사 등 오대양에서 대규모의 총체적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55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구기간 동안 태평양의 남쪽지역에서만 63척의 조사선으로 총 564회의 탐사를 실시하였으며, 55년간의 남태평양 생태계 연구에 러시아는 총 517천만 달러를 사용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수산분야 노하우와 과학적 지식은 많은 국제협정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고, 현재 러시아는 수산관련 협력활동을 하는 20개 국제기구의 회원이며, 36개국과 수산업 관련 52개의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러시아는 다자협정뿐만 아니라, 양자협정 분야에서도 수산 관련 국제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러시아의 국제수산 정책의 근간은 다음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UN협약과 1995년 12월 4일 UN총회와 지역수산관리 기구가 결의한 ‘회유성·이동성어류 자원보호에 관한 해양법’에 대한 UN협약의 실현을 위하여 상기 협약을 엄격히 준수한다.

2. 수산자원 보호 및 조업관리 대책은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다.
3. 수산자원에 대한 생태학적·예방학적 차원의 폭넓은 접근을 적용한다.
4. 수산자원의 발굴 및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는 지역 수산조직에 어획쿼터를 할당한다.

상기 원칙의 준수를 통해 러시아는 태평양에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였으며, 더불어 러시아 수산업 역사 이래 단 한차례의 수산자원 훼손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 러시아는 확고한 어업관리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수산청은 유관기관과 함께 다음의 기본방향에 대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UN총회의 결정에 따라 러시아는 남태평양과 북태평양의 새로운 지역어업관리기구 구성에 활발히 참가하고 있으며, 또한 중서태평양의 회유성어류 어획관리와 보호에 관한 협약, 남동대서양의 어업기구, 인도양 참치위원회, 지중해 어업이사회의 가입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러시아는 양자협정을 통하여 안정된 어업관리와 수산생물자원 보호에 관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상반기 러시아-이란 수산위원회를 통해 지난 5년간 중단되었던 이란과의 수산분야 협력을 재개하였습니다.

2009년 4월 28일 유럽연합과 발틱해 수산자원 보호와 수산분야 협력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 7월 20일 브라질 수산양식부와 러시아 수산청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은 양자 또는 다자형식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수산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입니다.

2009년 6월 24일 러시아 수산청은 남아프리카의 나미비아 공화국의 수산해양자원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09년 8월 15일 볼리바르 베네수엘라 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정부 간 수산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시에라 리온 공화국, 세네갈 공화국, 앙골라, 페루, 니카라과, 쿠바와 수산분야 협력에 대한 양정부간의 협정안이 준비되었습니다.

셋째, 그러나 수산시장의 안정된 지원 및 어업관리를 보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

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을 근절하고 방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IUU어업에 맞서기 위한 ‘러시아 국가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IUU어업 근절을 위한 ‘1)항구국 조치’에 대한 국제협정 초안 검토를 위해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기술자문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12일 도쿄에서 러시아와 일본정부는 수산물 불법반출과 수산자원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의 근절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한국정부와 IUU어업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에 대한 협정서안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IUU어업에 미국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는 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단체가 모여 수산물 가공, 저장, 처리를 위한 연안지역 인프라개발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 6월 9일 푸친총리가 동 전략을 검토하고 승인한 상태입니다.

상기 전략 중 세법과 관련하여 2009년 1월 1일까지 관세지역 밖에서 획득한 수산물의 러시아 반입시 부가가치세의 무이자 할부 및 통관세 지불을 면제하는 정부법안과 개인기업의 수산자원이용 시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하여 저금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세법수정에 대한 정부법안이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가공 및 판매를 위해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러시아 영토내로 반입할 경우 특별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항구기반시설로는 현재 어선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16개의 선박항구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1991년 이후 수산업의 급격한 변화, 어획량 및 선박수의 감소는 선박항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취급화물 중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여, 현재는 전체 화물량에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블라디보스톡 선박항구는 1990년에 150만톤 이상의 화물을 취급하였는데 그 중 87% 이상이 수산물이었으나, 최근 선박항구에서 취급하는 수산물 화물량은 전체 화물량의 10~12%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FAO 항구국 조치협정: 불법어업(IIU) 근절을 위해 2007년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 불법선박에 대해서 입항 또는 항구사용을 거부하고 나아가 항구국 검색관이 승선하여 IIU 행위 가담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협정

상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산물 운송 및 저장능력 향상을 위한 운송물류회사 설립을 검토하였습니다. 러시아 수산물의 운송·저장에 관한 문제점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극동지역의 도로뿐만 아니라, 냉동시설 개수 부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선을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로 운송한다면, 시베리아지역과 러시아 서부지역에 수산물을 저장하고 할당할 수 있는 중심지가 있어야 하나 현재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러시아의 생선냉동시설 용량은 고작 245~250천톤 정도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부산시에만 150만톤의 생선냉동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수산자원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되는 전체 수산물의 70%가량을 수입하여 소비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어획되는 대부분의 수산자원은 해외로 수출되는 모순점을 갖고 있어 자국 수산물 소비촉진의 한 방향으로 수산물 반입강화를 통해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을 개정하여 법인 또는 개인기업에 배정된 수산자원 어획쿼터의 최소 25%를 수산물거래소에 의무적으로 반입시켜 판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반입된 물량은 국내시장에서 유통·판매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의 가격인상을 부추기는 중개업자를 퇴출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수산물 거래소에서는 수산회사가 공급자가 되고 가공업자, 도소매업자가 구매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투명한 시장질서가 확립이 될 때, 정부는 수산물 가격형성 과정을 감독할 수 있을 것이고, 가격안정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속에서 수산업은 국가수익 창출에 이바지하는 몇 안 되는 경제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산관계자들은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바 소임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산업은 정부 및 재계의 적절한 지원과 외국기업과의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 국제어업인포럼에 참가한 국내외 모든 참가자들이 생산적인 결과를 얻어가길 바라며, 수산물거래와 국제수산업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